

연말연시 중요범죄 신고 줄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중요범죄 신고가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과 PC방 등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치안수요에 따라 집중 순찰하는 등 야간 인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강도(14.6% 감소)와 절도(8.4% 감소) 등 중요범죄 112신고가 일평균 8.1% 감소했다.

경찰은 주취폭력과 데이브폭력 등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주변 폭력 등에 연정 대응, 갈취·주폭 등 생활 주변 폭력배의 경우 집중적인 단속으로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이 9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13.4명에서 26.6명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의 음

경찰청,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강도 등 중범죄 신고 일평균 8.1% 줄어
주폭 등 생활 주변 폭력배 검거 98.5% ↑
음주 교통사고 32.5%, 사망자 수 51.4% ↓

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교통사고는 32.5%, 사망자수는 51.4%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상설중대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지역별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등 대표적인 범죄 취약장소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범죄예방 및

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했다”며 “범죄예방 진단은 9516회, 범죄예방 요령 홍보는 13만8207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외사경찰을 중심으로 전 기능인 협업, 형사사법과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엄정 단속하는 등 범죄예방을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관 협업체를 활용, 구청 등 지자체와 협력해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환경을 개선했다.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을 11개 경찰서에서 12회 개최한 결과 ‘캡티브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예산 1억7000만원 가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128건)하고 생계형 경미사범의 경우 처분을 감경(807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연계(12건)하는 등 공동체 복귀를 유도했다.

지자체와 유관단체, 주민 등과 협력해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02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350회) 등을 전개했다.

경찰청은 “실 명절에도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해 안정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중국 산시성서 탄광 무너져 최소 21명 사망

중국 북서부 산시성에서 발생한 탄광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일 오전 21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오후 4시30분께 산시성 선무시에 있는 바이지광업의 리자커우 탄광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87명이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중 66명은 구조됐으나 2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고층아파트 화재 80대 부부 숨져

뉴욕 맨해튼의 고층호화아파트에서 12일 새벽(현지시간) 화재가 발생, 유리창으로 꺼낸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집 안에 있던 80대 노부부가 숨졌다.

메리 메로우(85)는 이스트 52번가의 유명한 리버하우스 아파트에서 불이나 현장에서 사망했고 89세의 남편 존 메로우는 웨일 코넬 메디컬 센터로 급히 옮겨졌지만 화상으로 숨졌다. 소방관 3명도 화상으로 입원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소방대와 수사관들은 참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불은 9층 이 부부의 집에서 새벽5시에 발생했으며 10여개의 방이 연기로 가득했다. 부인은 집 안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아파트는 아르 데코 양식의 건축물로 FDR드라이브와 이스트리버를 굽어보는 호화 아파트이며, 리버하우스 단지는 1931년에 건설되었다. 26층의 타워 빌딩과 두 체의 15층 짜리 별관으로 구성되어있다.

헨리 키신저, 여배우 우머 서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유명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현재 시가는 300만달러(33억 4800만 원)에서 1400만 달러(156억 2400만 원)에 이른다고 부동산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져있다.

미 중부서 동부 해안까지 폭풍설로 5명 사망

미국 중서부의 로키산맥지대로부터 캔사스 네브라스카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설이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주를 거쳐 동부 해안지역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미 연방기상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 쌓였고 세인트루이스 시 일대에서는 30cm 이상의 적설량을 보여 최소 5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당국은 발표했다.

눈지역은 12일 오후 동부해안으로 이동해 워싱턴 DC 지역과 메릴랜드 주에도 일요일인 13일까지 7~15 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주 살렘을 비롯한 산악지대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 되었고 비교적 저지대인 델라웨어주 볼티모어주에는 얼음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폭설대가 통과한 일리노이주에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시시피강을 따라 나 있는 고속도로에서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차량 충돌사고가 신고 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 중 한 곳에서는 73세 노인이 숨졌고 캔사스주와 미주리주에서도 5명 이상이 숨졌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1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남서부지역 도로에서 만 114건의 차량 충돌을 포함해 261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주 방위군도 밝혔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거나 배수로에 처박힌 차량들로 인해 일어났다.

브라질 폭력사태 계속...송전탑 차관매소 폭파

10여일째 경찰서, 대중교통 및 공공 건물 등에 대한 총격과 방화 등 범죄조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 북동부 세이라주에서 다시 송전탑 한 곳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대한 폭발물 공격이 지령되었다고 12일(현지시간) 주 당국이 발표했다.

주 공공안전국은 그 동안 11일에 걸쳐서 은행, 경찰서, 공공기관에 대해 무려 194건의 공격이 있었고 최소 150명의 용의자가 체포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폭력사태는 주도 포르탈레자를 비롯한 50여개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당국은 세이라주에서의 폭력 사태가 교도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교도소 내에 결성된 범죄 조직들은 교도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작년 고드름 제거 119

출동 3485건...1년 4배 ↑

소방청은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발견 시 119에 신고해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고드름 제거를 위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5031건에 달한다.

2016년 684건이던 출동 건수는 2017년 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485건으로 전년 대비 4배 폭증했다.

서울(2017년 2회→2018년 9회)과 경기(2017년 153회→2018년 347회) 지역에 내려진 한파 특보가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출동 건수의 절반에 이르는 44.2%(2222건)가 서울(1202건)과 경기(1020건)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고드름은 주로 건물 외벽에 맺히며, 기온 변화에 녹았다 열기를 반복하면서 무게가 아래쪽으로 흘러 오래 방치하면 낙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드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량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한파 특보시 통과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한 위치에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한 경우 주변 통행을 삼가고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장래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고드름 발견시 관리자에게 알려 안전선을 설치하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팽팽한 힘겨루기 새해 첫 소싸움 경기가 열린 12일 오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들이 힘겨루기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 청소년들 “이순자 망언 규탄...전씨 부부 사죄해야”

전두환 재판 출석 요구·단죄 주장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라 평가한 부인 이순자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씨에게 재판 출석과 사죄를 요구했다.

광주 불펜스쿨과 특성화고등학교생 권리 연합회 소속 고등학생 10여명은 12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씨는 권력을 위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죽인 ‘학살의 아버지’다”며 “전 씨 부부는 5·18희생자 유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한다”고 밝

혔다.

또 “1980년 당시 평화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총격이었다”면서 “전씨의 집권으로 많은 시민이 죽고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를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순자씨의 망언에 분노한다”면서 “오월영령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후회하는 망언

을 한 이씨는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고령과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부인 이씨의 발언도 재판 불출석 명분과 동정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자 술 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이어 “전씨는 스스로 죄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반드시 재판을 통해 헛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더 이상 후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훈장 제관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친환경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